

#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한 것』

이시준\*

2022년 개봉된 영화 <브로커>로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촬영되고 배우도 한국인인데, 유독 감독이 일본인이라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리라. 인터넷을 보면 이 영화를 두고, 종종 한국영화인지 일본영화인지 하는 물음이 등장한다. 제작사 및 배급사가 국내 회사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한국영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듯싶는데, 일본의 미디어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어디까지나 감독을 우선하여 마치 일본영화인 것처럼 기사를 생산해 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감독이 유일하게 고레에다 정도인 점을 생각해 보면 그런 아전인수적인 태도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아무튼 일본영화니 한국영화니 하는 것은 국가의 틀을 깨고 인적 교류와 자본이 뒤엉켜 가고 있는 작금의 영화제작 환경을 고려하면 그다지 생산적인 물음은 아닌 듯하다.

## 고레에다는 어떤 감독?

고레에다는 1962년 6월 6일, 도쿄에서 출생했다. 1987년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문예학과 졸업 후, 'TV맨유니온'에 참가하여 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았다. 2014년에 독립해 제작자 집단 '분복分福'을 만

---

\*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든다.

주요 TV 작품으로 미나마타병 담당자였던 환경청 고위 관료의 자살을 파헤친 <그러나……>(1991년/CX/갤럭시상 우수작품상), 송아지 한 마리와 아이들의 3년간의 성장을 담은 <또 하나의 교육~이나伊那 소학교 봄반(春組)의 기록~>[(1991년/CX/ATP상 우수상) 등이 있다.

1995년, 첫 감독작인 <환상의 빛>이 제5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골든 오셀라상(각본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의 <윈더플 라이프>(1998)는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30개국, 전미 200관에서 개봉해 일본 인디펜던트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히트를 쳤다. 2004년, 네 번째 감독작인 <아무도 모른다>가 칸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제 사상 최연소의 최우수 남우주연상(야기라 유아柳樂優弥)을 수상. 2006년, <하나(花よりもなほ)>로, 원수를 갚는다는 테마로 한 첫 사극에 도전했다. 2008년에는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반영한 홈드라마 <걸어도 걸어도>를 발표, 블루리본상 감독상 외에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첫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기를-Cocco 끝나지 않는 여행>을 개봉. 2009년 공기인형이 제62회 칸국제영화제 ‘어떤 시점’ 부문에 정식 출품돼 관능적인 러브 판타지를 그린 신경지라고 극찬을 받는다. 2010년, <요사한 문호 괴담 시리즈>(NHK BS-hi)에서, 무로오 세이세이室生犀星의 단편 소설을 영상화한 <후의 날>을 발표. 2011년 <기적>이 제59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수상. 2012년, 첫 연속 드라마 <고잉 마이 홈>(간사이 TV·후지 TV 계열)에서 전작품 각본·연출·편집을 담당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난쟁이’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 『쿠나』(그림: 오츠카 이치오大塚いちお, 출판사: 이스트 프레스)를 간행한다.

2013년 <그리고 아버지가 되다>로 제66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외에 국내외 다수 수상. 2015년 <바다마을 다이어리>가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정식 출품되었고,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촬영조명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2016년 <바다보다 깊게>가 칸국제영화제 ‘어떤 시점’ 부문에 정식 출품됐다. 2017년 <세 번째 살인>이 제74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정식 출품,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 외 6

관왕. 2018년 <어느 가족>이 제71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제9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 제44회 세자르상 외국영화상, 제42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상 최다 8개 부문 수상. 2019년 카트린 드뇌브와 줄리엣 비노슈를 주연으로 맞아 전편 프랑스에서 촬영한 일불 합작영화 <진실(원제 La Vérité)>이 제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오프닝 작품으로 정식 출품됐다. 자신의 첫 한국영화 브로커를 2022년 개봉, 제8회 이타미 주조(伊丹十三) 상 수상. 저서로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급관료 그 삶과 죽음』, 『걷는 속도로』 등이 있다.

## 저서 『영화를 찍으면 생각한 것』

고레에다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높은데, 그의 주요저서는 대부분 번역되었고, 지금부터 살펴볼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한 것』(2016)은 그의 삶과 영화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겠다.

400페이지(원서)의 방대한 양의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여 년간의 구상을 거쳐 완성된 티브이업계와 일본영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27년간을, 1989년 첫 다큐멘터리 작 <지구 ZIGZAGU>부터 2016년 영화 <바라보다도 깊게>까지의 제작체험 등을 회고하며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TV디렉터 시절부터 영화감독 데뷔 이후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생각, 창작 비화, 영향을 받은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상념이 응축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화감독인 자신을 TV디렉터의 시선으로 취재하는 느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고비마다 제가 해 온 일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책은 자신이 자신을 응시하며 그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텔레비전·영화 업계의 촌철살인과 같은 비평도 포함하며, 그때그때의 에피소드를 잔잔하게 풀어나간다. 본 글에서는 각 영화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 및 해설은 생략하고 평소 품고 있었던 감독의 관심, 3가지를 추려 이하 소개하기로 한다.

###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고레에다는 대학 졸업 후, 1987년, 25살 나이에, ‘티브이맨유니온’이라는 제작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들은 교육, 복지, 부락 문제, 재일교포 등 사회파로 분류되는 강한 주제가 많았다. 그 때 본인의 기획으로 첫 다큐멘터리를 찍던 중, 당초의 기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때 경험했던 ‘있는 그대로의 것’ 과 ‘설정’ 사이에서 그는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의의에 대한 본격적으로 고민했다.

저는 ‘설정’이란 자신의 이미지(픽션)를 현실보다 우선시해 버리는 닫힌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령 진지한 사회고발형 다큐멘터리의 경우 찍기 전부터 어떠한가만 한다는 이상이 확고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안에 존재하고, 거기에 정신이 매몰되어 버리면 무엇을 지향했던 여하를 막론하고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내가 카메라로 찍는 쪽이고 당신이 찍히는 쪽으로 해서, 거기서 완성된 작품 또는 프로그램 속에, 풍부한 공공적인 장소, 공공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서로가 노력해서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방송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 성립된다면, 취재자와 피취재자가 대립하지 않고 같은 철학 하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론 일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의 성립 근거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권력은 별개입니다.) 경찰이나 정치인 등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몰래카메라나 전화 도청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소당할 거면 고소당하

면 되고 재판을 해서 질 거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찍어야 할 것은 찍어야겠다는 각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피사체가 찍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의식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넣었습니다만,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영향’의 시간이 리얼하다고 할까, 취재자와 피취재자 사이에 있던 투명한 막이 걷어내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대 때는 주인공에 대해 강하게 공감했고, 이야기의 주어는 ‘나’였다.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를 찍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고레에다의 시선은 ‘어른’으로서의 제삼자의 것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또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을 그릴 때에는 등장인물의 독백(모노로그)이 아닌 대화(다이얼로그)를 이용한다는 방법 등은 다큐멘터리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 티브이는 무엇이 가능한가?

고레에다는 스스로를 ‘티브이 소년’이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TV 드라마에 열심이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다양한 드라마에 심취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일종의 티브이 프로그램에 관한 문화강좌 ‘미디어워크숍’에 참가, 티브이 프로그램 개혁에 열정적인 무라키 요시히코를 만나게 된다. 당시의 티브이 문제에 대해서 고레에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티브이가 보급된 후 수년은 ‘티브이란 무엇인가’라는 자문자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 티브이를 접한 지 10년이 되어서는 스스로의 아이덴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접어들었다. …… 하지만 그러한 자문자답은 70년대에 끝나버렸다. 무라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질을 추구하는 레디컬한 작업은 기업이 안정됨에 따라 배제되어 갔다’는 것이다. 즉 방송국이 일류기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묻는 행위는 배제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티브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시대에,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대해 개혁을 무라키의 TV 개혁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면서, 고레에다는 TV 프로그램 중, 특히 스포츠나 뉴스보도와 같은 생중계에 주목하여,

티브이의 생중계의 매력이란 편집이라는 형태로 시간이 잘려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어느 시간을 보여주고 무엇인가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시청하는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큐멘터리나 티브이이라고 하는 시간예술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 방송국, 정부, 디렉터 등 모든 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술회한다. 하지만 녹화한 것을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된 현대에서, 생중계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 고레에다는 위의 견해에 이어서 ‘생중계’의 ‘생’보다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이 생중계를 보고 있다는 느낌, 즉 ‘중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는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진일보된 TV관을 제시한다.

고레에다는 결코 이상론자는 아닌 듯하다. 그는 현실이라는 지면에 발을 확실하게 딛고, ‘TV는 이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TV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보다도 나의 주변, 그리고 영화의 역할은?

감독은 영화 그 자체 만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작품을 찍으며 늘 현실사회를 직시한다. 영화를 만들면서, 어딘가에 있을 사람과, 그 사회를 항상 기저에 깔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사회’는 간혹 ‘국가’의 개념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그러한 ‘사회’는 아닌 듯하다.

‘인터넷을 떠도는 사람이 왜 우익이라고 할까, 내셔널리스트가 되는가?’ 이 물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흘러 떨어졌을 때, 그들을 수렴하는 가장 알기 쉬운 유일한 가치관이 '국가'라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의 일본을 보면 지역공동체가 이미 궤멸 상태이고 기업공동체도 종신고용제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으며 가족의 유대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가족을 대신할 매력적인 것·장소·가치관(그것을 「홈」이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지만)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국가라는 환상에 차례차례 수렴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자신의 생활이 어떤 것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시대나 인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사회와 연관된 암부를 주시하며, 또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만남을 소중히 하며, 외부와 마주대하며, 그 좋은 점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돌출해 내 갈 것인지 앞으로도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고레에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는 바, 이하와 같이 영화 그 자체에 무한한 신념과 의의를 부여한다.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풍요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영화를 하나님에 비유할 생각은 없지만 영화의 한 종복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영화라는 넓은 강 물줄기의 한 방울의 물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다함께 나누는 것이 영화제입니다. 의외였던 것은 나 또한 백이십 년을 이어온 영화라는 역사의 시슬의 고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각이 체관인 이상으로, 나에게게는 새롭게 고향을 찾은 듯한 이상한 안도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자서전이다. 그의 영화 세계, 더 나아가 큐멘터리관, TV관, 미디어관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바이블 같은 도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가치는 연구자나 취미인의 영역을 훨씬 뛰어 넘어버린다. 무

십코 책을 든 독자들은 그의 담담한 인생이야기를 통해 사람과의 소통, 그것을 통한 성찰, 그리고 사회를 살피며 더불어 사는 행복 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고양감은 흔한 종교서나 처세교훈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